창세

* 태초의 무(無)에 창조신 "쑤(xu)"와 "주(zu)" 그리고 힌도르(hindor)가 나타난다.
* 쑤는 무의 세계에 큰 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만들었고, 주는 이 무한한 공간에 "별"이라는 보석들을 만들어 채웠다.
* "힌도르"는 "은하수"라는 찬란한 강을 만들고 우주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땅"이라는 보석을 띄웠다. 또한 "쑤"는 자신들을 닮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 그러나 이들은 불완전하게 태어난 존재였고 신은 이들이 실패작이라 여겼다.
* "쑤"와 "주"는 다시한번 시도했고 두번째 계획은 성공하여 완전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번엔 인간을 둘로 쪼개어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이다.
* 신들은 두번째 인간을 총애했다. 그러나 첫번째 인간은 신을 섬기는데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 신들은 두번째 인간만을 곁에두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결국 첫번째 인간을 다시 돌아올수없는 다른 차원의 먼 우주로 보낸다.. 이들이 버려진곳은 훗날 안드로메다라고 불리게 된다.
* 첫번째 인간은 신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지게 되며 두번째 인간에게 질투와 증오심을 갖게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원이 다른 인간 세계로 올 방법은 없었다.
* 태초의 "남" "여"는 첫번째 인간의 존재를 알게되고 그들을 "악마"라 부르기 시작한다.
* 두번째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곳을 "지구"라 부르고 번창했다.
* 인간들은 신이 사는 세상을 동경했다. 이에, 신은 인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어 영예롭게 산 한정된 인간들을 신의 세상으로 올수있게 했다. 인간들은 이 선물을 "죽음"이라 불렀다.
* 죽음으로 신의 곁에 있을수 있게 된 인간들은 "천사"라고 불리게 된다.

지구

* 고대엔 링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땅이었으나 지각변동으로 엠드리스 대륙이 떨어져 나왔다.

엠드리스

* 멀록이라는 마법사가 있었다.
* 이는 태어날때 부터 돌연변이라 보통인간들과는 좀 달랐다.특히 신에 대해서는 조금의 존경심도 없었다.
* 그는 젊은시절 부터 흑마술에 심취했다.
* 그는 강력한 흑마술을 바탕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엠드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의 군주가 된다. 그는 군주의 자리에 오르며 멀록이라는 이름 대신에 "멀린"으로 불려지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마법사왕이라 칭했다.
* 멀린의 힘은 엠드리스 전체에 어둠을 드리우게했고 다른 왕국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 또한 멀린은 신의 선물인 "죽음"을 거부하려 했다. 멀린은 이에 이 세상 모든 어둠을 흡수하여 집약한 "타마"라는 보석을 만들어 낸다. 이 보석은 천년의 영생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
* 멀린은 이 보석을 자신의 이마에 영구히 박아넣고 그 힘으로 마침내 천년간 "죽음"을 반납하는데 성공한다.

아싸스와 다섯영웅

* 아침의 태양이라 불리는 왕국의 서자 아싸스는 원대한 야망을 갖고 있었다.
* 아싸스의 아버지왕은 병에걸려 죽을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다섯자식들은 보이지 않는곳에서 치열한 권력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 서자출신으로 세자의 후보에도 들지못한 아싸스는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배다른 왕자들을 모두 살해한 후 자신의 어린 친동생을 허수아비 왕위에 올린다.
* 왕국을 평정하고 안정을 찾은후 아싸스는 눈을 외부로 돌려 세력을 점차 키워나갔다.
* 마침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멀린의 왕국과 마주친다.
* 아싸스와 그를 따르는 다섯가문 영웅들이 멀린을 쓰러트리고 대륙을 통일한다.
* 그러나 아싸스는 마법사왕을 죽일방법이 없어 그를 공허의 구멍(씽크홀) 깊은곳에 던져 넣어 영구 봉인하였다. 동굴은 끝을 알수없을만큼 싶어 인간은 들어갈수 없고 차원의 경계라 알려져 있다.
* 대륙을 평정한 아싸스는 "코리어스" 라는 통일제국을 세우고 초대 황제에 오른다. 이후 코리어스는 천년간 화려한 전성기를 맞게된다.
* 마법사왕은 차원의 경계에 갖혀 서서히 녹아내렸지만 그의 영혼 그 자체인 "타마"는 맹렬히 어둠의 불을 뿜어내 이로 인해 경계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배경

* 때는 천년후 제국 말기.
*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코리어스 제국은 점차힘을 잃어갔다. 마침내 35대 황제 "쥐바크"와 36대 여황제인 "그웨네"로 이어지는동안 정부의 무능과 방관으로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도시엔 역병이 돌고 지방영주들에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며 제국은 서서히 몰락해가기 시작했다.
* 당시 제국은 13인의 충성스럽고 뛰어난 장군들이 있었다
* 제국의 충신인 이들 장군들은 제국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 1군단장인 아고두르는 천년전 마법사왕의 전설을 알게되고 이 마법사왕이 갖고있던 "타마"만이 죽어가는 제국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천년의 앞날을 약속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13인의 장군들은 공허의 구멍에 잠들어 있는 "타마"를 꺼내기로 한다.
* 타마의 봉인을 풀기위해선 열쇠가 되는 10가지 흉물이 필요한데 이는 천년전 아싸스가 마법사왕을 봉인할때 당시 마법사왕이 착용하고 있던 물건 10가지를 탈취해 대륙곳곳에 숨겨두었던 물건들이다.
* 또한 봉인해제 의식을 위해서는 불의 사제단의 도움이 필요하다.
* 하지만 불의 사제단은 대륙에서 모습을 감춘지 100여년이나 지났다.
* 제국의 군대는 불의 사제단의 행방을 쫒는다.
* 주인공에게 어느날 신분을 감춘 불의사제 한명이 비밀리에 찾아온다.
* 제국이 타마를 꺼내려 한다. 타마가 세상에 나오면 마법사왕이 부활할거다. 제국이 지금 자신들을 쫒고있다. 그들이 타마의 봉인을 해제하려면 자기가 필요하다.
* 제국이 흉물들을 모으려 하고 있다. 막아달라.
* 흉물보관소로 안내한다. 그러나 이미 제국이 꺼냇다. 마주쳤다.
* 흉물 수집후 계속 다른 보관소로 이동
* 다 모으면(중후반) 불의 사제가 흉물들을 들고 도주.
* 공허의 구멍에서 불의 대사제 3명이 어떤 의식을 한다.
* 자신들의 에너지를 모아 타마를 폭발시키고 순교.
* 차원의 틈에서 악마족이 쏟아져 나옴
* 이 땅의 마물들을 타락시켜 군대로 사용
* 한편 차원의 경계에 있던 타마는 천년간 끝없이 어둠의 파장을 일으켜 이는 결국 다른 차원의 안드로메다에 있던 악마족의 관심을 끌게된다.
* 결국 타마로 인해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안드로메다와 연결되는 웜홀이 생성되었다.
* 악마족은 강력한 힘을 가진 타마와 지구를 차지하기 위해 웜홀을 통해 인간세계를 침공한다.
* 휘하엔 12인의 뛰어난 장군들이 있음(원탁의 기사12인을 모티브)
  + 제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위대한 장군들.
* 각 장군들은 각 군단의 군단장
* 그중 모드레드는 정치싸움에 밀려 암살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신 후 아군진영에 투항
* 당시 플레이어는 가장 세력이 커지고 있는 영주